

現代重

기관차 추진시스템 싱가포르에 수출

싱가포르 LTA에 기관차 추진제어시스템 일체 수출 쾌거

現代重工業(주)가 싱가포르 LTA(Land Transport Authority)로부터 기관차 핵심 전장품 3종을 수주했다.

이번에 수주한 전장품은 130 kW급 견인전동기, 350 kVA급 VWF Inverter(전동기 구동장치) 및 55 kVA급 SIM(보조전원장치)로 LTA의 기관차 8대에 장착될 핵심 전장품이다.

특히, 싱가포르는 선진국에서 적용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국제 규격보다 까다로운 품질 및 성능을 요구하였으나, 현대중공업(주)는 그동안 축적된 기술력으로 싱가포르 LTA의 모든 규격을 통과함으로써 수주에 성공하였다.

현대중공업(주)는 현재 운행 중인 경부선 고속철도(KTX)에 핵심 전장품을 공급하였으며, 광주 지하철에도 국산화한 추진제어장치를 공급하는 등 국내 철도 차량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1998년 인도에서 SIM(보조전원장치)를 수주한 이래 다량의 핵심 추진제어장치 일체를 수출하게 됨으로써 향후 대만,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의 대형 프로젝트 진출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TWIN형으로 설계하여 배선용 차단기와 호환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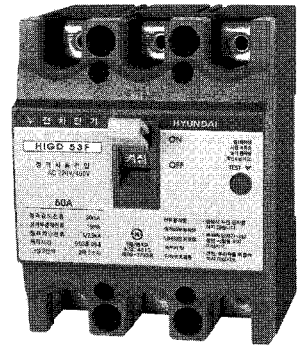
- 고차단형 (정격차단전류35KA)까지 공급범위 확대

- 심플하고 미려한 디자인

현대중공업은 지난 1년간 약 10억원을 투자하여 개발한 분전반용 누전차단기, 산업용 누전차단기 및 분전반용 배선용 차단기를 개발해 판매에 나섰다.

금번에 출시된 신형 제품들은 개발단계부터 수차례의 실증차단 시험, 내환경시험, 전자파테스트(EMC TEST) 및 동작시험을 통해 기존 제품들에서 발생하였던 문제점이 완벽하게 개선되었다.

신형 산업용 누전차단기의 경우 기존의 배선용 차단기와 동일한 설계개념을 도입한 TWIN형으로 상호 호환성을 갖추었으며, 전면에 Front Door를 채택하여 내부 부속 장치의 탈 부착이 용이토록 하였으며, 정격감도전류 조정 장치가 있어 사용환경에 맞게 정격감도전류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신형 누전차단기

또한, 현대중공업은 전기기기 사용자의 안전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향후 누전차단기의 사용이 확대될 것에 대비, 4극(4 Pole) 및 400AF 이상의 누전차단기 개발도 완료하여 곧 출시할 계획이다.

LG산전

상반기 매출 5004억원 .. 24% 신장

- 매출액 5천4억원, 영업이익 800억원, 경상이익 660억원 순이익 462억원
-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액 24%, 영업이익 59% 신장
- 해외시장과 고부가가치 시장 공략이 실적호조로 이어져
- 6월 말 기준 이익잉여금 293억원 발생, 배당재원 확보가 가능한 구조로 전환
- LG산전 연 매출 1조 400억원, 영업이익 1천700억원 예상
- LG산전, 20일 오후 4시에 증권거래소에서 기업설명회 개최

LG산전(www.lgis.co.kr)은 상반기(1~6월)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매출액 5천4억원, 영업이익 800억원, 경상이익 660억원, 순이익 462억원의 경영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실적과 비교하여 매출액 24% 신장, 영업이익 59% 신장, 경상이익과 순이익은 흑자 전환한 것이다.

LG산전 관계자는 "이번 상반기 매출은 수출이 지난 해 동기 대비 48%, 내수는 17% 신장한 것"이라며 설비투자 부진 등 내수침체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호조를 보인 데 대해서는 "대규모 고부가가치 시장, 즉 수출이 활성화되고 있는 플랜트, IT산업 시장을 주로 공략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LG산전은 6월 말 기준 이익잉여금 293억원이 발생하는 등 배당재원 확보가 가능한 구조로 전환되었다.

LG산전은 하반기 내수침체 예상에도 불구하고 전력기기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연간 매출 1조 400억원, 영업이익 1천7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G산전은 20일 오후 4시에 증권거래소에서 기업설명회를 갖고 상반기 경영실적과 사업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2004년 상반기 실적(단위 : 억원)

구 분	2003년 상반기	2004년			비 고
		1분기	2분기	상반기	
매출액	4,046	2,383	2,621	5,004	24%신장
영업이익	504	390	410	800	59%신장
경상이익	△790	320	340	660	흑자전환
순이익	△635	223	239	462	흑자전환

동서발전

- 교대근무 직원 '사기충천'
- 교대근무 직원 대상「한마음 과정」특별교육 시행 -

"교대근무 직원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함께 자기계발의 동기 부여를"

최근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가 근무여건상 교육 기회를 갖기 힘든 교대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이 시행하고 있는「직원 한마음과정」프로그램은 교대근무 직원들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기창조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는 취지로, 발전 화학 연료 분야 약 600여 명의 교대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7월초 교대근무 직원 97명을 대상으로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제1차「직원 한마음 과정」을 가졌으며, 이번에 20일부터 3일간 무주리조트에서 발전, 화학분야 교대근무 직원 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차「직원 한마음과정」특별교육을 시행했다.

한국동서발전 관계자는 "교대근무라는 근무여건상 교육기회의 제공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 교대근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이번 교육을 추진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동서발전은「직원 한마음과정」을 통해 자칫 교대근무직원들이 등한시하기 쉬운 경영현안에 대해 설명, 회사운영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균형감각 있는 안목을 갖도록 돕는 한편, 미래의 변화를 준비하는 의식개혁 특강을 통해 교대근무자들 스스로가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직원들간의 일체감 조성을 위해 극기훈련과 팀워크 훈련을 병행, 프로그램에 참가한 직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차 교육에 참가했던 직원은 "형식적인 차원의 교육에서 벗어나 새롭게 시도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내용 이 매우 만족스러웠다"며, "좀처럼 교육기회를 얻기 힘든 교대근무 직원들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동서발전은 이번「직원 한마음과정」을 2004년, 2005년 중 총 10회에 걸쳐 시행, 약 600여명의 교대근무 직원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직원들의 연수 과정을 담은 1시간 짜리 동영상 CD를 제작, 참가자들에게는 즐거운 추억을 제공하는 한편, 회사 교육자료로서도 활용할 예

정이다. 한국동서발전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환경이지만 회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교대근무 직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동서발전이 ‘발전회사 중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회사’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 당진화력 7,8호기 건설 본격 시동 - 13일, 7호기 최초 콘크리트타설 행사 가져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가 당진화력 7,8호기 건설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한국동서발전은 13일 당진화력 7,8호기 건설현장에서 주성철 당진화력본부장을 비롯, 두산중공업과 삼성물산 등 건설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화력 7호기 보일러 기초 최초 콘크리트 타설 행사를 가졌다.

당진화력 7,8호기 건설공사의 무재해 무사고를 염원하는 안전 기원제를 겸해 가진 7호기 기초콘크리트타설 행사에서 한국동서발전은 경과보고를 통해 현재까지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는 당진화력 5~8호기 건설공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재해없는 공사를 만들자는 결의를 다졌다.

한국동서발전 관계자는 “당진 5~8호기 건설사업의 성공여부가 회사 중기경영목표인「ACE 2007」구현과 직결되는만큼 건설공기 단축을 통한 수익창출을 추진 중에 있다”며, “현재 이러한 건설공정 단축 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동서발전에 따르면 당진화력 5,6호기는 2005년 12월과 2006년 6월을 준공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당시부터 단축공정을 적용하여 추진되었던 사업이나 보다 적극적인 내부목표를 수립, 2005년 하계이전에 5호기 전출력 운전이 가능토록 함은 물론 5,6호기 공히 준공시점을 각 3개월씩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07년 6월 및 200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당진화력 7,8호기 역시 5,6호기 건설과정에서 축적된 시공 및

시운전 경험을 최대한 살려 전출력 운전 및 준공시점을 약 3개월 조기에 시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지난 6월 19일 7,8호기 건축허가를 포함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취득한 한국동서발전은 본격적인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이 다져진 만큼 차질없는 건설공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동서발전 관계자는 “현재 건설 중인 당진화력 5호기의 경우 보일러 수압시험을 기본계획공정 대비(對比) 2개월 단축된 8월 말 시행 일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6월말 현재 종합공정율 64.2%로 계획보다 다소 앞선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7호기의 경우 도 이미 현재 주기기 공급과 관련한 고압터빈케이싱 제작에 착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기적인 품질검사와 정밀진단을 실시해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하는 등 어떠한 경우라도 공기 단축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품질을 확보해 나가겠다”며, “선안전 후시공을 원칙으로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최적의 안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동서발전은 당진화력 5~8호기 건설에 설계최적화와 신기술 신공법을 적용하고 발전소 전 수명기간 동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설계 시공분야에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기법을 활용, 수명주기 원가개념에 입각한 건설원가절감을 적극 추진하여 미래 경쟁력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중부발전 질소산화물 배출농도 저감 등 친환경경영 선도

한국중부발전(주)은 14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 주최, “제2회 굴뚝 TMS 우수 운영사례” 발표회에서 환경부장관 및 환경관리공단이사장상을 수상했다.

굴뚝 TMS(Telemetering System)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감시하기 위해 24시간 상시 오염물질을 자동 측정하여 원

격 감시하는 방법으로 이는 환경오염 사전예방 및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위한 선진화된 시스템이다.

이 날 행사에서는 박선숙 환경부차관을 비롯하여 이만의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관련 담당공무원, 산업체 TMS 운영자 및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20여개의 기업체가 제출한 사례 중 엄선된 4개의 우수 운영사례가 발표됐다.

한국중부발전(주) 제주화력발전소는 보일러 연소방법에 있어 개선 전 대비 30%의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킨 "질소산화물 배출농도 저감을 위한 보일러 연소방법 개선"과 "전기집진기 하전전류 변경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등 3건의 개선사례를, 서울화력발전소는 "굴뚝 TMS 데이터와 연계한 배연탈질설비 최적운영" 사례를 발표했다. 이러한 개선사례는 별도의 설비투자 없이 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함으로써 대기환경을 보전하고 43억원에 달하는 탈질설비 설치 대체효과 등 회사경영효율화에 크게 기여한다.

중부발전 전 직원은 친환경경영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환경보전을 실천해 왔으며, 지난 6월에는 2004 환경경영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노력이 이번 발표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

앞으로도 중부발전은 "환경과 인간을 먼저 생각하는 초일류기업"이라는 환경비전을 바탕으로 환경경영개선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명을 다할 것이며 환경보전에 앞장서는 친환경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두산중공업, 싱가포르항 크레인 42기

- 컨테이너 이송용 RTGC, 4천6백만 달러 상당

두산중공업이 싱가포르 항구에 설치될 크레인 42기를 4,600만 달러(한화 528억원)에 수주했다.

두산중공업은 싱가포르 항만국(PSA Corporation Ltd.)이 발주하고 중국, 일본, 싱가포르 현지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치뤄진 싱가포르 항구용 컨테이너 이송용 크레인 국제경쟁입찰에서 가격 및 기술 분야에서 앞서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크레인은 선박에서 하역된 컨테이너를 야적장으로 옮기는 RTGC(Rubber Tyred Gantry Crane) 타입으로 최대 40톤까지 운반이 가능하다. 특히 이 크레인은 1기당 바퀴수가 기존 설비의 2배인 16개로 안전성이 높은 것이 큰 특징이다.

두산중공업은 이 크레인을 설계에서부터 제작, 공급,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전공정을 자체기술로 수행해 오는 2005년 9월까지 발주처에 인도할 예정이다.

두산중공업 홍성은 부사장(화력BG장)은 "두산중공업은 지난 93년 11기, 95년 34기에 이어 이번 수주까지 싱가포르항에서만 총 87기를 수주하게 됐다"며, "이는 항만하역설비에 대한 세계적인 기술과 경험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것으로 싱가포르 뿐만 아니라 앞으로 물동량 증가로 항만건설이 늘고 있는 동남아 운반설비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두산중공업은 올해 1천억원 규모의 부산신항만 크레인 수주를 비롯해 캐나다 후레이저(Frasen)항 크레인 2기, 인천항 4기, 그리고 삼천포 화력발전소 석탄하역설비 2기 등 운반하역설비 사업에서 활발한 수주실적을 올리고 있다.

기능장 4명 배출해 6년째 '국내 최다'

- 85년 첫 배출 이후 '기능장 사관학교' 명성 이어

두산중공업은 최근 실시된 2004년도 제35회 기능장 시험에서 4명의 직원이 새로 합격해 323명의 기능장을 보유하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기능장을 취득한 두산중공업 직원은 정수국 직장, 김성모 직장, 이추원 반장, 최병훈 반장 등 4명이다. 특히 이 반장은 전국에서 단 3명 뿐인 전기기기 기능장 자격증을 따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따라 두산중공업은 '국내 최다 기능장 보유 기업'을 99년

이후 6년째 유지하고 있다.

또한 1985년 이 회사 이영호 반장이 전기공사기능장을 취득한 이후 20년 동안 한해도 빠짐없이 매년 기능장을 배출하고 있어 '기능장 사관학교'로서의 명성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두산중공업 정석균(鄭錫均) 전무(관리본부장)는 "회사가 자격증 취득을 장려하고 있고 기술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으려는 분위기가 고조돼 4개의 기능장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도 있다"고 말했다.

자격증 취득 열기로 이 회사에는 기능장 자격증 4개 보유자가 1명, 3개 2명, 2개 11명이다.

'기능장'은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뒤 해당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으로 기능계의 최고 자격이다.

남부발전

- 1.5억弗, 10년만기, 표면금리 5.750%로 -

韓國南部發電(株)은 7월21일 만기 10년의 1.5억달러 유로본드를 발행하였다.

주요 발행조건은 발행금리 5.854%, 표면금리 5.750%로 기준금리인 미국채 10년 금리에다 1.38%의 스프레드를 가산하여 결정되었으며, 발행형식은 Reg S Eurobond로 아시아 및 유럽에서 판

매되었다.

본 채권의 발행은 하반기에 예상되는 미국의 본격적인 금리인상 이전에 발행하려는 아시아지역의 채권발행 물량이 대폭 증가한 가운데서도 발행예정금액 1.5억불의 240%인 3.6억불의 수요가 쌓여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반영했으며, 발전회사들의 10년 만기 채권에 대한 벤치마크가 될 것으로 보인다.

南電의 이번 10년 만기 유로본드 발행은 지난해 5년 만기 1.5억불 유로본드 발행에 이어 두 번째로 발행하는 해외채권으로서, 장기자금이 소요되는 발전소 건설소요 자금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南電은 남제주 #3,4호기를 건설 중에 있으며, 2009년까지 하동화력 #7,8호기 등 4개 발전소 건설에 약 1조 9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南電은 한전으로부터 발전회사 분리 후 지난 3년간 지속적인 경영실적 향상과 재무상태 개선을 바탕으로 지난 3월 30일 S&P로부터 A-로 1등급 상향되었으며, 지난 6월 11일에는 A3등급인 Moody's사로부터 '부정적' 등급전망에서 '안정적(Stable)' 등급전망을 획득하였고, 현재 국가등급과 동급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이번 채권발행에는 ABN AMRO은행과 Barclays은행이 공동주관사로(Joint-Lead Manager), 산업은행이 보조주관사로(Co-Manager) 참여하였다.